

피겨우뚱뚱의 외침

2025년 초연 화제작, 2026년 다시 무대 위로

억압과 저항,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옥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를 묻는다.

거룩한 항쟁 그날 이후...

작곡 김민아
대본·연출 김숙영

2026. 3. 1(일)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국립합창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 명선아트홀 MYEONGSEUN ART HALL

<관객 한 줄 리뷰>

* 오늘 공연을 관람하신 후 한 줄 관람평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국립합창단 2026 시즌 <숨> 3-4월 호에
소개해 드리며,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참여하기





안녕하십니까,
국립합창단 이사장 이상현입니다.

국립합창단의 2026년 첫 무대로 선보이는 3·1절 기념음악회 <거룩한 함성, 그날 이후...>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창작 합창음악극입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격동의 시대 속에서 울려 퍼졌던 수많은 목소리와 그 이후의 시간을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2025년 초연 이후 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과거의 아픔과 기억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를 되묻습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 침묵 속에서 이어졌던 연대의 힘, 그리고 다음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지를 합창이라는 집단적 예술 언어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합창은 개인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울림을 이루는 예술입니다. 이는 3·1운동이 지녔던 정신,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하나의 외침을 만들어냈던 역사적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관객 여러분께서 국립합창단이 준비한 서사와 음악을 함께하시며 시대를 초월해 이어지는 감동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가치, 그리고 오늘의 사회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합창단은 앞으로도 동시대의 의미를 담은 레퍼토리와 예술적 도전을 통해 합창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 국립합창단 이사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기억입니다.
3·1절은 그 질문이 가장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며, 우리는 그 의미를 음악이라는 언어로 다시 마주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함성, 그날 이후...>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날의 외침이 시간 속에 머무는 것에서 나아가 오늘의 삶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합창과 독창, 연기와 내레이션, 관현악이 어우러진 이 무대에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은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시대의 감정이자 공동체의 증언으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소비하기보다 기억해야 할 책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사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특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관객분들 각자의 마음에 질문 하나를 남기려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문장 하나, 오래 마음을 두드리는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다짐이 되고, 그 다짐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

그날, 외치지 못한 채 남겨진 합성이 다시 울려 퍼지다!

독립을 향한 합성은 1919년 3월 1일의 만세 함성만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숨죽여 조국의 해방을 외쳤다. 말할 수 없었기에 밝힐 수 없었기에, 더 처절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합성들이 있었다.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의 첫 기자회견 이후 사회는 뒤늦게 그 함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기자 박은영은 그 흐름 속에서 한 편의 소설을 마주한다. 작가 최강산이 자신의 할머니, 정옥분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 <거룩한 합성> 이었다.

1930년대, 독립운동가 강산과 혼담이 오가던 정옥분은 그가 독립운동으로 마을을 떠난 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한다.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며 신여성으로 꿈꾸던 그녀는 구두공장 공장장의 계약으로 위안부로 끌려가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 해방이 찾아왔지만, 옥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대신 하와이로 떠나 또 다른 타향에서 홀로 살아간다. 그곳에서 옥분은 전쟁고아였다가 버려진 소년 최철수를 만나 입양하고, 다시 구두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할머니가 된 옥분은 철수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조용히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과거의 악몽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재력가가 되어 나타난 공장장은 옥분을 조롱하고, 다른 피해 소녀들마저 모욕한다. 분노에 휩싸인 옥분은 그를 향해 날카로운 구두를 들지만, 철수와 남겨질 후손들을 떠올리며 끝내 이를 내려놓는다. 대신 그녀는 외친다. 자신을, 그리고 함께 사라져 간 소녀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던 기자 박은영은 깨닫는다. 조국의 독립을 가장 간절히 바라며 합성을 삼켜야 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질문한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 이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거룩한 합성, 그날 이후...>는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침묵 속에 묻힌 합성을 현재로 불러내어, 관객에게 묻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서곡

2. 꿈꾸는 자의 노래 강산, 정옥분, 마을 청년들, 테너 솔로, 합창

3. 오빠 생각, 그래도 우리는 정옥분, 신여성 대표, 모던걸, 어린이 합창, 합창

4. 구두 공장 데스칸트, 합창

5. 너는 어찌, 나는 이미... 환청과 환영 강산, 어머니, 아버지, 합창

6. 내가 살던 고향 어머니, 여성합창

7. 낯선 땅 낯선 사람, 그래도 너를 만나 정옥분, 합창

8. 구두 공장 - 나는 엄마 테너 솔로, 합창

9. 날 기억하는가?

10. 저자를 심판하라! 합창

11. 나는 기다립니다, 늘 그렇듯 정옥분

12. 소녀들의 숨죽인 외침 박은영, 소프라노 솔로, 합창

13. 내 할머니의 이야기 전체

14. 거룩한 합성 전체

외치지 못했던 합성, 지금 우리가 응답해야 할 이야기

작곡 김민아

지난 3년간 3·1 운동과 독립군, 독립투사들, 일제에 항거한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작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난 인물이 아닌, 숨죽여 독립을 외쳤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고,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위촉을 받았을 때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으로 <거룩한 합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옥분처럼 이름 없이 희생된 소녀들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자랑스러운 독립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독립을 바랐지만, 그 외침은 끝내 세상에 들리지 않았다는 설정을 중심에 두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허구의 인물이지만 허구가 아니었던 옥분은 우리 모두의 가족이었을 것이기에 작곡가로서 깊은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접하며 공감과 감사,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억울함과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김숙영 연출가의 대본과 차인표 배우를 통해 접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자료는 분노를 넘어 '공감과 위로'가 먼저여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에 <거룩한 합성, 그날 이후...>는 원망과 슬픔에 머무는 감성 위주의 작품이 아니라, 험난한 삶 속에서도 희망으로 살아간 인물과 민족의 이야기를 해피 엔딩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따뜻한 위로가 남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합창 음악극 형식을 택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합창은 극의 중심이 되어 서사를 이끌고, 군중이자 환청이 되며 때로는 관객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를 위해 46인조 오케스트라를 활용하되, 편성과 음색을 달리하여 현재·과거·환청의 시공을 구분했습니다. 현악기의 분할 연주는 소녀들의 순수함을, 무반주 합창은 옥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소프라노 솔로는 정옥분의 삶과 심리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리듬과 화성, 음역과 오케스트레이션의 변화는 그녀가 겪는 붕괴와 상처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며, 반복되는 순환 주제는 감정의 궤적을 따라 이어집니다.

작곡 과정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주인공의 어머니 노래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의 마음은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곡과 '소녀들의 숨죽인 외침'이 새로 추가되었고, 초연 이후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거룩한 합성>은 한 여인의 생을 넘어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민아 작곡가 노트

사라지지 않은 목소리, 오늘을 향해 울려 퍼지다

대본·연출 김숙영

창작 합창음악극 <거룩한 합성, 그날 이후...>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울부짖었던 이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날 이후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 희생에 응답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품은 역사를 과거의 기록으로만 재현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주해야 할 현재의 이야기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관객을 사건을 '듣는 사람'이 아닌 '직접 목격하는 사람'의 위치에 두고, 무대 위 인물들과 함께 시간과 감정을 통과하며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감각으로 체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의 시점을 무대에 불러오으로써,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책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와 한계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작품은 설명적인 내레이션 대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구조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현재형의 질문임을 드러냅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기억은 관객에게 전이되고, 타인의 아픔이 관객 자신의 이야기로 이동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기억과 공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정옥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아픈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살아낸 한 인간이자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했던 강인한 여성의 상징입니다. 그녀를 고통의 연속으로 소비하기보다, 기억에서 지워지기를 거부한 인간의 존엄과 인내, 그리고 오늘로 이어지는 희망의 서사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자'라는 인물을 통해 이 문제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질문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거룩한 합성, 그날 이후...>는 단지 피해자를 향한 동정과 눈물을 요구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피로 물든 그날의 합성에 대해 후세로서의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해와 강요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 또 다른 아픔과 미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은 슬픔을 되풀이하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국립합창단과 출연진들의 합성이 관객 각자의 기억과 일상 속에서도 오래도록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가사

꿈꾸는 자의 노래

(강산, 마을 청년들)

새날은 늘 우리를 찾아오는데

더없는 기다림 속에 마냥 어둠에 멈춰 있을 것인가

멀어지는 봄을 지켜만 볼 것인가

새봄은 언제나 같은 모습인데

어둠에서 두 눈을 뜬 들

총, 칼 앞에서 두 주먹 불끈 쥐들

빛 아래 두 눈 뜨고 독립을 위해

이 두 손에 총, 칼 들고

대한 독립 위해

그날의 거룩한 함성이여

독립 위해 우리는 싸우리라 대한 독립 위해

(강산)

내 마음 깊은 곳 흐르는 내 사랑, 너는 알고 있는 거지

설렘으로 머뭇머뭇, 흐느낌으로 출렁이는 내 마음

널 향한 내 몸부림, 내 그리움, 내 사랑

너는 알고 있는지

바람의 길이만큼 영원한,

바다의 깊이만큼 깊어진 내 사랑

너는 정말 알고 있는 거지

(정옥분)

기쁨보다 슬픔이, 햇살보다 그늘이 많던 우리

하늘 위 노니는 새, 가녀린 슬픔도

땅에 나뭇구는 잎사귀 파리한 아픔도

그렇게 그렇게 우린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찌 나 홀로...

(강산, 정옥분)

슬픔은 늘 눈물처럼 찾아오고

가슴 저며오는 이른 그리움

내 온 세상이 다 잠긴 당신이기에

머뭇머뭇 거리며 떠나가는 당신 모습

설레임도, 수줍음도 이제 모두 아픔

시간이 멈춘 듯 다 사라지는 영겁의 시간

하지만 우리 독립된, 자유된 나라에서

(강산, 마을 청년들, 합창)

더없는 기다림 속에 마냥 어둠에 멈춰있을 것인가

멀어지는 봄을 지켜만 볼 것인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뜬 들,

총, 칼 앞에서 두 주먹 불끈 쥐들

빛 아래 두 눈 뜨고 대한 독립을 위해

이 두 손에 총, 칼 들고 대한 독립 위해

그날의 거룩한 함성이여,

독립 위해 우리는 싸우리라

대한 독립 위해

오빠 생각,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 합창)

풀 먹인 하얀 모시 적삼 구김 없이 걸어두고

우리는 오라버니 기다리네

햇님 향한 해바라기

싸르륵 싸르륵 싸리비 소리

햇님도 꼬끼오도 나오기 전

오라버니 오시는 길 어여쁘게 향기롭게 단장해

(신여성 대표, 모던걸, 정옥분)

우리도 가족과 나라 위해 공부하고 돈 벌고

우리도 교육을 받아 모던걸 되어 돈도 벌어

가족에게 나라에게 큰일 해야 해

멋지게 당당하게! 이게 어찌 남자들에만 맡겨둘 일인가, 우리도 함께!

우린 이제 모던걸, 배우고 돈 벌어 세상의 중심이 되자, 빛나는 모던걸!

우리는 모던걸, 가족 위해 일하고 나라 위해 일하는 세상의 주인공!

우리는 모던걸! 우리도 어엿한 모던걸!

또각또각 양구두 신고 세상 중심에 서 있으리

(신여성 대표, 모던걸, 여성합창)

또각또각 양구두 신고 또각또각 기다리네

(어린이 합창)

풀 먹인 하얀 모시 적삼 해바라기처럼 오라버니 기다리네

(신여성 대표, 모던걸, 정옥분, 합창)

우리는 모던걸(아름다운 걸) 우리도 모던걸(자유롭게)

어엿한 모던걸(오늘도 멋진) 우리는 모던걸

구두 공장

(합창)

그렇게 옥분은 끝없는 기다림, 그리움에 지치고

배움과 일거리에 파묻혀 지내네

양손에 깊이 패인 상처와 주름들

구두공장 여공 되어 비단 구두, 코 구두

보름달 대낮처럼 포근하게 감싸건만

풀벌레 처량하게 기다림이 서럽게

서럽게 가슴 치대네

언제나 꽃으로 피울까

언제쯤 임과 함께 자유의 나라에서 독립을 노래할까

한 해 두 해 기다리다 녹아진 가슴에 찬 기운만 서리네

비단 구두, 코 구두

계절은 언덕 위에 수북한 낙엽 올리고

오늘, 내일 분주히 오가던 그 길에

내 임의 흔적 지워져 아무도 몰라 하나

아직도 내 눈에는 흰한데, 선명한데...

수북한 낙엽 사이 내 임의 얼굴이, 내 나라 내 땅이

나라와 함께 내 임조차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너무나도 두려워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젠 무엇 꿈꾸나?

그렇게 사랑을, 독립을 외치던 소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너는 어찌, 나는 이미... 환청과 환영

(강산)

흰 눈, 머리에 이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눈 내리면 내리는 대로 나는 그저 너만을 보고 달려왔지.

너를 보고 싶음이라, 아지랑이 같은 현기증!

가슴 설레는 소풍 길, 그 길을 더듬어 너를 향해

분홍 꽃망울 닮은 너를 향해

크게 울부짖던 내 사랑, 마냥 울부짖던 사랑이 결국 이렇게...

흰 눈, 머리에 이고 앓은 산처럼,

지고지순한 매화처럼,

첫서리 맞는 동백처럼,

그렇게 그냥 기다리라고 했던만...!

(부모님)

누가 돈 벌라 했나, 누가 배우라 했나, 지금 너의 모습은...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망측한! 지금 너의 모습은...

내가 살던 고향

(여성합창)

공공 언 얼음 위 팽이 치던 오라비와 동생

누런 코, 코끝에 매달리면 달려와 닦아주던 언니야

논바닥 얼음 얼어 썰매 타다 두 발 공공 얼어 발 아프면

지계에 올려 엮고 오시던 아버지, 언 발 아랫목에 녹여주시던 어머니

오늘도 그때처럼 크게 웃고 싶는데,

오늘도 그때처럼 이쁨받고 싶는데...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는데 내 앞에는 어둠뿐이고,

마음속에는 또렷한 모습이건만, 손이라도, 손이라도...

그리운 아버지, 보고 싶은 어머니 손이라도, 손이라도...

가사

(어머니)

네가 심어 놓은 뽕나무 아침저녁으로 손질하고 가꿔 실하게 잘 자라고 있건만 가족 위해, 나라 위해 오라버니처럼 떠난 아가가

지금 어디 있는가?

순종밖에 몰랐던 내 순하디순한 아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무슨 짓값이 이리도, 이리 심한가 말이오...

전쟁에 아들 잃고 그나마 금지옥엽 어여쁜 딸까지도 품에 안은 지 오래요

어인 짓값이 이리도 큰가 말이오...

낮선 땅 낯선 사람, 그래도 너를 만나

(정옥분)

모두 다 행복한 그곳,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그곳

내 아버지, 내 소중한 어머니,

이젠 두 분의 모습 희미해져

불효라 원망치 마오, 죽었다 생각해 주오,

우리 만나 원망치 말고 나 죽었다 생각하오,

치대는 가슴 안고 지낸 날도 허망하오.

검붉은 통곡도 기억에서 멀어지오.

그래도 가끔 행복이 나도 궁금하오.

내게 다시, 다시 미소 짓게 해 준다면.

(합창)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언덕에 앉아

봄 햇볕 등지고 나물 캐던 어린 손들

찬 기운 뱀 봄바람은 그렇게, 그렇게 어린 손등을 터지도록 심술 부리고

나물 캐던 언덕엔 올해 봄도 어린 싹잎 캐는 꼬맹이 아씨들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지...

구두 공장 - 나는 엄마

(합창)

세월이 흘러 그녀의 머리엔 하얀 눈처럼 흰머리 덮이고

더 이상 어릴 적 꿈도 사랑도 사라졌지만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다시금 흐르고 눈가엔 희망 보이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면 구두와 옥분은

그렇게 시간 가고 늙어가지만

그래도 옥분은 구두와 행복해, 더 이상 구두공장 지옥이 아니네.

입가엔 미소가 눈가엔 행복이

오래전 꿈꾸었던 사랑 사라져버려도 또 다른 행복으로

그렇게 또 다른 희망으로 아픔을 지우고

그녀는 철수 엄마, 사람들에게 불리네 철수 맘!

구두장인 옥분, 철수의 엄마

그녀는 만드네 최고의 비단 구두, 코 구두

그녀의 손에선 최고의 비단 구두, 코 구두

이제는 하이힐 똑딱 만들다가 뚜다닥 뚜닥!

저자를 심판하라!

(합창)

잔혹한 살인마, 끔찍한 살인마, 흉악한 얼굴 보라

가면 쓴 살인마, 희대의 살인마, 저자를 심판하라!

저자를 심판해 즉시! 즉각 심판! 가면 쓴 저 짐승! 심판! 당장!

저 가면 쓴 짐승에게 당한 만큼

저 짐승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네가 당한 고통! 당장 심판하라!

지나온 너의 고통 생각해 봐! 고향도, 가족도 잃고

무슨 잘못 있다고 젊음도 잃고

고향도, 가족도, 세월도 잃고 지난 세월 모든 것 잃고

고통 속에 살아온 세월, 저자 때문이야!

어떻게 어린 소녀를... 살인보다 큰 죄, 즉각 심판, 당장!

어서 내리쳐, 어서 어서!

당장 내리쳐!!

나는 기다립니다, 늘 그렇듯

(정옥분)

아빠를 많이 빼어 닮았구나.

아빠를 닮았으면 머리도 좋겠구나.

그래, 그래 다들 함께... 있는 거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는 모두

그렇게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웃으면서

옹기종기 도란도란 살고 있는 거지, 옹기종기 도란도란

날 알아본 다른 사람도 없고, 얼굴조차 기억할 이 하나 없겠지만

도대체 왜 나 홀로 버티고 있을까나

무심한 내 입아, 무심한 내 입아!

하늘에서 만나면 나를, 늙어빠진 바보를 알아는 볼까?

어둠에서 눈 뜬들 뭐가 보여? 길고 긴 고통의 명을, 어찌 단번에 풀릴까.

속으로 삭이며 외쳐댔던 조국 독립, 들리기나 했을까?

그래도 다행이야. 나는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될 거야

그래,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요! 내 기다림 헛되지 않게 기다릴게요.

소녀들의 숨죽인 외침

(합창)

길고 긴 세월,

어여쁜 기억도, 꽃 같은 젊음도, 봄 같은 젊음도

깊게 패인 주름에 눈물이 말라, 눈물도 말라 서걱거리고

하늘 위에 날아가는 새, 가녀린 슬픔

땅 위에 텅구는 잎사귀, 파리한 아픔

나 그렇게 위로하고 홀로 버텨 왔는데

석양에 지는 해도 저 혼자 홀로 붉은 울음 토하고

서녘에 지는 해도 저 혼자 붉은 울음을 토하고

숨죽여 넘기는 이내 서글픈 외침은 피멍 든 슬픔이니

따스한 봄바람도 내 눈물 얼리고

숨죽인 흐느낌에 꽃잎마저 떨구네.

(박은영)

깊게 패인 주름 위로 말라 버린 눈물자국

양상한 손가락 사이 숨죽인 기도 소리

내 할머니의 이야기

(어린이 합창)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 구두 사 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력기력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뿔귀뿔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떨어집니다.

거룩한 함성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갓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가녀린 숨결을 붙잡아

쓰러져 가는 나라를 지킨

선열의 절박한 손길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온몸으로 버텨 낸 뜨거운 애국을 기억하오

심장에서 퍼 올린 뜨거운 피로 여기에 모여 큰 소리 외쳐

거룩한 그대들의 함성을 우리는 기억하네

잔인한 그 시절 봄날 뜨거운 마음으로

철창 뚫고 피어났던 환한 꽃들이여

영킨 선혈 풀고 따스한 봄볕 아래

쓰린 웃음 견어 내고 봄처럼 환하게 웃으소서

영원히 기억하리

철창 뚫고 피어난 환한 꽃들의 희생으로 지켜 낸 우리나라

빛나는 우리의 꿈과 희망 고귀한 자유와 평화

자랑스런 대한민국 빛나라라

도약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 우리나라 영원하라!

지휘 민인기



국립합창단의 제12대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는 특유의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그리고 정확한 바톤 테크닉으로 대한민국 정상의 합창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도미하여 미국 뉴욕대 합창지휘 석사, 합창 최고의 명문 미국 남가주대(USC)에서 합창지휘 전공으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부산시립, 대구시립, 광주시립, 고양시립, 원주시립, 청주시립, 당진시립, 부천시립, 용인시립 그리고 안산시립 등을 객원 지휘하였고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청주시립교향악단, 강릉시립교향악단, 프라하 심포니에타,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 키예프방송교향악단, 뉴 재팬 필하모닉 교향악단, 오사카 교향악단 등 유수의 교향악단을 협연 지휘하며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아우르는 정확한 해석과 감성이 있는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수원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및 강릉시립합창단 등 20년 이상 국립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직전 이사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로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Yale Univ., Westminster Choir College, George Mason Univ., Univ. of Wisconsin, Colorado State Univ., 독일 Köln 국립음대, 이탈리아 Parma 국립음악원, 스위스 Lausanne 국립음대 등 세계 유수의 음악대학 초청으로 합창 지휘 마스터클래스 그리고 합창 세미나 강의를 통해 한국 합창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2025년 11월 폴란드 쇼팽 국립음악원에서 열린 2025 Int'l Conference "Personality of the Conductors"에 공식 초청되어 세미나 및 강연 등을 통해 한국합창의 우수성을 알리고 돌아왔다.

지난 2024년 1월 제12대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여 국민들에게 감동과 위로, 희망을 전하는 지휘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합창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립합창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기대해 본다.

작곡 김민아

아름답고 다양한 색채의 화성적 음향을 통해 폭넓은 합창의 스펙트럼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곡가 김민아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통해 작곡을 전공 하였다. 1999년부터 성가 합창을 작곡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 가곡은 물론, 뮤지컬, 오페라, 칸타타 등 다양한 장르로 창작 영역을 확장하며 15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대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접목시켜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화성의 사용과 텍스트를 극대화한 극적 장치를 통해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2022년 발표한 "별 헤는 밤"에서는 윤동주 시의 깊은 감성 위에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을 엮어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매우 세련되게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음악극 "Green People"과 같은 극적 요소가 강조된 실험적인 작품들로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무용과 풍물이 더해진 합창극 "West and East"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에 현대적 감각의 음악적 장치들을 더해 새로운 합창의 지평을 열었다.

국립합창단 위촉 작곡가로 활동 중인 그는 서울시합창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립합창단과 오페라단, 시립교향악단의 위촉을 통해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합창작곡가협회 회장으로서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협성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총신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 합창음악계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무대의 언어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그의 ‘작품의 목표이자 신념’이라고 말하는 대본·연출가 김숙영은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연극영화과를 거쳐 아리조나주립대학에서 공연예술학과 음악극 연출학을 전공하였다. 2013년부터 한국 오페라 무대에서 연출을 시작한 그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 극장과 야외극장에서 정통오페라는 물론 한국 오페라 100여 편을 무대에 올리면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대표 오페라 축제인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2014년부터 <토스카>, <나비부인>을 비롯해 최다 연출을 맡아 2019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로 2018년도에는 서울 시의회 ‘문화공로상’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총연출을 맡고 있다. 그가 연출한 <마술피리>, <라 트라비아타> 등 10여 개의 작품은 한국문화 예술연합회의 ‘우수 공연상’을 받아 전국 지방극장을 순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 국립오페라단 기획공연 <라 보엠>, <사랑의 묘약>과 2024 서울문화재단 노들섬 클래식 <카르멘>을 성공시킴으로써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 ‘연출가상’을 받았다.

25년 연출을 맡은 오페라 <찬드라>가 올해의 신작으로 선발되어 관객과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 솔오페라단의 오페라 <스페인 시계>를 비롯해 많은 국내 오페라 작품과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을 연출할 예정이다.

작·연출가로서 그는 2015년 춘천문화재단의 <아빠 이야기>를 시작으로 김해문화재단의 <허왕후>, 서귀포문화재단의 <이중섭>, 창원문화재단의 <바다의 노래>, <찬란한 분노> 등이 그의 대표작품으로 국립합창단의 <거룩한 함성>이 공연화된 열한 번째 작품이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세종대학교 연출과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정옥분 역]

소프라노
조선형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스페인 빌바오(2012), 이탈리아 쿠네오(2014), 부드리오(2009), 파르마(2008) 국제 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 우승
-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 비스바덴 국립극장, 포르투갈 리스본 국립극장 등 세계 유수 극장 주역 활동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협연
- 주요 출연작 <토스카>, <아이디>, <나비부인>, <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 <운명의힘> 외 다수



[강산 역]

테너
박익준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Italy Donizetti Academia Diploma(성악)
- 제13회 성정음악콩쿠르 동상
- 한양대학교 오페라 <Die Zauberflöte> 타미노역, 서울시향 정명훈 지휘 오페라 <Tristan und Isolde> 멜로트역, 오페라 <Idomeneo> 및 <La Bohème> 단역 출연
- 한양원드오케스트라,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협연
- 현) 국립합창단 단원



[최강산 역]

배우
박영주

- 2024 연극 <헐릿>
- 2022 오페라 <라 보엠>
- 2022 연극 <위선자 따르뛰프>
- 2021 연극 <이순재의 리어왕>
- 2021 뮤지컬 <드라쿨라>
- 2017~2019 뮤지컬 <미스사이공 영국 & 아일랜드 & 유럽투어>



[박은영 기자 역]

배우
문희경

-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2007 제1회 부산영평상 여우조연상
- 2004 제10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 1987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
- 영화 <익스트림 페스티벌>, <틀립모양>, <어명>, <인어전설>, <글로리데이>, <불신지옥>, <서양골동양과자점 엔틱>, < 좋지 아니한가> 외 다수
- 드라마 <행복배틀>,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닥터 로이어>, <살인자의 쇼핑목록>, <며느라기 시즌 1, 2>, <쇼윈도: 여왕의 집>,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 외 다수
- 뮤지컬 <레베카>, <메노포즈>, <맘마미아>, <미녀와 야수>, <나인>, <다시, 봄> 외 다수



[최은서 역]

배우
김혜령

- 2025 연극 <원칙>
- 2025 연극 <잘모르겠어요>
- 2025 연극 <적의화장법>
- 2024 연극 <조조>
- 2024 연극 <광!>
- 2024 연극 <에스메의 여름>
- 2023 연극 <슬픈침승>



[일인 다역]

배우
차예준

- 2025 연극 <에릭사티와 벨레포크의 예술가들>
- 2025 연극 <보이즈 인 더 밴드>
- 2024 연극 <이방인>
- 2023 연극 <포슈>
- 2022 연극 <슈베르트, 겨울 여행>
- 2022 연극 <정의의 사람들>
- 2021 연극 <폭풍의 언덕>

[어머니역]



알토
최윤정

- 추계예술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Italy Accademia di Roma Diploma(성악)
- Italy Internazionale di Musica Arena corso vocale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모던걸 대표역]



알토
이도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성악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오페라과 졸업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티토 황제의 자비> 출연
- 현) 국립합창단 단원

[아버지역]



베이스
조대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음악학)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모던걸역]



소프라노
김명희

-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성악과 가곡 및 오라토리오 전공 졸업
- 오라토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등 다수 작품 솔리스트 출연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모던걸역]



알토
유승이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Italy Accademia Musicale Donizetti Diploma(성악)
- Italy Accademia di Roma Diploma(합창지휘)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마을청년들역]



테너
오영인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수료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오페라과 재학 중 도독
-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수학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마을청년들역]



바리톤
함신규

-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성악전공 졸업
- Musik und Kunst Privatuniversität der Stadt Wien, MUK Lied Academy 2017 Diploma of Participation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성악과 가곡 및 오라토리오 전공 졸업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마을청년들역]



베이스
유지훈

- 명지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수료
- 음악춘추 콩쿠르,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입상
- 오페라 <가면 무도회>, <안드레아 세니에>, <토스카>, <리골레토> 등 주역 출연
- 현) 국립합창단 단원



소프라노
정경임
(데스칸트)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오페라과 수료
- Italy Roma Accademia Internazionale di Musica Diploma
- 현) 국립합창단 단원



소프라노
박준원
(데스칸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오페라과 졸업
- 제50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등 주역
- 현) 국립합창단 단원



테너
김종갑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졸업
- Italy Roma A.M.I Accademia Diploma (성악 및 합창지휘)
- 이탈리아 굽비오 시 초청 독창회
- 현) 국립합창단 단원



바리톤
차광환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Italy Roma Accademia di Musica Diploma
- 부산예술중학교 출강
- 현) 국립합창단 단원



[꽃님역]
소프라노
김하린

- 일산양일중학교 재학 중
- 월드비전 합창단 단원



[최철수역]
배우
이준수

- 서울대현초등학교 재학 중
- 한울어린이합창단 단원



해금
양희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박사(D.M.A.)
- 제22회 KBS국악대경연 관악부문 장원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강사

제작진

작곡 김민아
대본·연출 김숙영
조연출 김지윤

무대
무대감독 이진수
무대조감독 신혜지
무대팀 최민지 김태우

조명
조명디자이너 박원광
조명디자이너 어시스턴트 신수진
조명팀 손승우 정지우

음향
음향디자이너 감독 박기만
음향팀 신윤호 신동혁 강민준 장지현
배현석 유서진 이소연

영상
영상디자이너 윤호섭
영상디자이너 어시스턴트 김은지
일러스트레이터 조민재
영상기술감독 이선철
영상팀 김성훈 윤병인 허지현
의상 김서경
분장 이정수
사진 황필주
촬영 토마토클래식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단으로서 고(故) 나영수 초대 단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음악의 거장(배덕운, 오세중, 염진섭, 김명엽, 이상훈, 구천, 윤의중)과 함께 지난 50년간 한국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왔다. 국립합창단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합창단으로 200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 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5회의 정기공연과 60여 회의 기획공연, 지역공연, 해외공연, 외부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성격의 공연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세음악부터 현대음악, 창작음악, 오페라 그리고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주요 합창 명작품 및 한국 가곡, 민요, 영화음악, 뮤지컬 등 모든 장르의 합창음악을 폭넓게 소화해 내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유 합창작품 개발 및 보급, 한국적 특성을 살린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힘을 기울여 합창음악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물론 합창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창작곡 발굴에 있어서는 대규모 칸타타 위촉 및 소품 창작곡 공모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창작품들을 발굴하는 취지의 프로젝트 등으로 한국합창음악계의 바람직한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제12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민인기 지휘자가 임명되어 음악적 사명과 예술적 비전을 균형 있게 구현해 나가며, 합창의 대중화 및 합창음악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우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 수준의 연주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등 한국합창의 세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4년 10월과 2025년 7월, 한일교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오사카 더 심포니 홀, 교토 콘서트홀,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에서 재팬 센추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뉴 재팬 필하모닉 교향악단과 협연으로, 모차르트 '레퀴엠', 하이든 '전시미사', 그리고 한국·일본의 명가곡들을 선보이며 교민을 비롯한 현지 일본인 관객들의 환호 속에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6년 11월에는 미국의 대표 합창단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마스터 코랄(LAMC)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세계적 공연장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합동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53년간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국립합창단은 향후 50년에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관현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현악·발레·오페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극장 오케스트라로, 대한민국 관현악 역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85년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범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새롭게 명명되며 국가 대표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유연과 참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국립심포니는, 한국 1세대 지휘자 홍연택부터 제8대 음악감독 로베르토 아바도에 이르기까지 독창적 음악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영화·게임·OTT 등 대중문화와의 협업을 통해 관객 저변을 확대하고, 미술·문학과의 만남으로 감상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예술과 기술, 세대와 장르를 잇는 무대로 클래식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국립심포니는 한국 음악 생태계의 중추로서 연주·지휘·작곡 등에서 미래 인재 육성, 창작 활성화, 지역문화 확산, 국제교류 강화 등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주자를 육성하는 KNSO아카데미(2021~)는 국내 주요 교향악단에 57명의 단원을 배출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창작 생태계를 강화하는 상주작곡가 제도(2014~)와 작곡가 아틀리에(2021~)를 통해 지금까지 14명의 작곡가가 발굴되어 15곡의 신작이 세계 초연되었다. 또한 미래 리더십을 키우는 지휘자 워크숍(2021~)으로 한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를 거점으로 한 청년 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KNCO)로 지역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KNSO 국제지휘콩쿠르의 2025년 국제콩쿠르세계연맹(WFIMC) 가입과 미국작곡가오케스트라(ACO)와의 협력으로 국제무대에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 데카코리아를 통해 '윤이상·슈만'(2024)을, 데카 레이블을 통해 '브람스 교향곡 1번, 최성환 아리랑 환상곡' (2019)을 발매했다. 또한, 2017년 발매한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은 그해 미국 브루크너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했다.



협연 월드비전합창단

월드비전 합창단(구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립 이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창립자 Bob Pierce, 한경직 목사)의 어린이 구호 사명을 실천하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으로 1978년 영국 BBC 주최 세계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16년 헝가리 칸테무스 국제합창 페스티벌 3관왕(그랑프리, 합창단경연대회 부문 금상, 민속음악부문 청중투표 1등상)을 석권하는 등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홍혜경, 세계 3대 카운터 테너 이동규, 뉴욕 타임즈가 극찬한 소프라노 강혜정 같은 우수한 성악가를 배출한 산실이기도 하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연주반과 강남·강서·여의도(신설) 3개의 지역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초청연주, 해외연주, 국제합창제 개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단원들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원들에게 단순한 음악 교육을 넘어, 예술적 성장·인성 함양·나눔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단장 겸 예술감독 부지휘자



민인기 김재은

반주자



서미경 김민환

총무 악보계



박동석 연응경

소프라노



*이은보라 | 수석 진지영 조윤정 정경임



신영미 김은정 이정미 박송이



김경하 신연정 김명희 박준원



김수빈 | 준단원 윤희원 | 준단원 박민선 | 준단원

알토



*강문선 | 수석 조연선 김옥선 최윤정



박정민 유송이 사이안 이도희



김해인 이진영 여정윤 | 준단원 김세미 | 준단원



김한나 | 준단원

테너



*김종갑 | 수석 조정환 윤인하 원종윤



김영욱 문형근 최성철 박익준



최정현 오영인 지재엽 황인호 | 준단원



박동현 | 준단원

베이스



*유지훈 | 수석 김문섭 강명원 주호남



길은배 차광환 박동석 조대현



정태준 함신규 박경호 | 준단원 박현철 | 준단원

경영지원팀

팀장 한상욱
차장 신현철
대리 박세진
팀원 차희선

공연사업팀

팀장 이성균
과장 허보연
대리 유세현
팀원 이우림
황혜성
김예솔

홍보마케팅팀

팀장 조화영
과장 강세미
팀원 이현정

유료회원 코코프렌즈

“연간 회원 가입으로 더 가까이, 더 특별한 공연 경험을 누리보세요.”

국립합창단의 새로운 유료 회원제 <코코프렌즈>는 Korean + Chorus의 앞 글자 ‘KoCho’를 합성한 단어로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친밀감, 유대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코프렌즈와 함께 국립합창단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혜택과 문화적 경험을 동시에 누리보세요.

회원명칭	연회비	혜택
코코프렌즈 (KoCho Friends)	3만원	티켓 구매 시 연간 40% 할인(R, S석에 한함 / 1회 4매)
코코프렌즈 골드 (KoCho Friends Gold)	5만원	티켓 구매 시 연간 40% 할인(R, S석에 한함 / 1회 10매)
공통혜택		· 공연 선예매 문자 안내 · 공연 정보 우편 발송 및 프로그램 북 증정 ·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북 회원명단 게재
회원 가입 방법		회원가입 신청서는 국립합창단 홈페이지(www.nationalchorus.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회원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회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2-722605 예금주 | (재)국립합창단

코코프렌즈 골드

강명원 강세미 강인선 강찬성 광성은 권미영 김명희 김문섭 김민교 김세훈 김우석 김유천 김재찬 김지영 김진우
남은자 노익섭 문형근 박미자 박송이 박정민 박준원 사랑의교회 호산나찬양대 사이안 신경필 신영미 신철호 신현우
안성민 오철민 원종윤 유송이 유지훈 유한경 윤인하 이도희 이은보라 이인수 이재환 이진영 이태훈 이해연 임수영
장윤재 정경임 정설주 정윤아 정윤희 정은영 조대현 조명욱 조정환 주미라 주호남 차두진 최경원 최명례 최미경
최성철 한태성 함신규 홍미다

코코프렌즈

강민수 강인선 강창호 고은희 구교령 권정호 권혜진 길은배 김능근 김대우 김래산 김무영 김미진 김민정 김서윤
김여진 김영수 김옥경 김유진 김임하 김재찬 김재환 김경애 김중현 김주홍 김준혜 김진희 김하늘 김현경 노승찬
도성광 문정호 민영기 박구일 박선호 박용석 박용좌 박지인 박창주 백재은 변경순 변은주 서동빈 서성훈 서정창
서혜림 성영미 송 미 송현중 신경필 신근욱 신려진 신성우 심 산 심재은 오영인 오정석 윤민형 윤선미 이규성
이다호 이동제 이상직 이신호 이양상 이영을 이우림 이유화 이은숙 이자영 이정수 이진성 이찬우 임지에 전가현
전행준 정다운 정성균 정안진 정욱자 정윤희 정은규 정향숙 조은준 조재영 채수경 최동호 최영주 최지연 최진일
최창기 함은옥 홍순희 홍정아

26. 2. 23. (월) 기준

가입하기



후원회원

음악의 선율이 모여 화음을 이루듯 귀하의 참여가 우리의 합창을 완성합니다.
국립합창단의 후원회원이 되어, 품격 있는 음악의 감동을 함께하세요

	등급	연회비	우대 및 혜택	등급	연회비	우대 및 혜택
개인 회원	NCK Friends	10만원	· 티켓 50% 할인(공연당 2매) · 합창 스튜디오 참관(연 1회) · 감사 답례품 증정	Gold	300만원	· 정기·기획공연 R석 4매 제공 · 추가 티켓 50% 할인(공연당 4매 한정) · 후원회의 밤 초청, 스튜디오 참관, 기념일 이벤트, VIP룸 서비스 등
	Silver	100만원	· 정기공연 R석 2매 제공 · 추가 티켓 50% 할인(공연당 4매 한정) · 후원회의 밤 초청 및 감사 답례품 등	Platinum	500만원 이상	· 정기·기획공연 R석 6매 제공 · 후원회의 밤 초청, 기념일 이벤트, VIP룸 서비스 · 프라이빗 강의 및 Meeting with Maestro 초청 등
기업 회원	NCK Partner	1,000만원 이상	· 정기·기획공연 R석 10매 제공 · VIP룸 서비스, 프라이빗 강의(연 2회), Maestro 미팅 · 이사장 및 단원 만찬 · 단체 회원: 프로그램 북 광고(연 2회), 프리렉처 개최 등	NCK Master	5,000만원 이상	· 정기·기획공연 R석 20매 제공 · VIP룸 서비스, 프라이빗 강의(연 4회), Maestro 미팅 · 이사장 만찬, 주차권, 컨시어지 서비스 · 단체 회원: 광고, 프리렉처, 찾아가는 음악회, 사가(社歌) 녹음 등

후원회장

김강호 GUNSAN GOLF & RESORT (군산 골프 앤 리조트) 대표

수석 부회장

박용섭 두원이에프씨(주) 회장

부회장

김용선 신동아건설(주) 대표

이사

정 경 (사)오페라마예술경영연구소 대표

NCK Master

이인정 (주)태인 회장

NCK Partner

GUNSAN GOLF & RESORT (군산 골프 앤 리조트)

Platinum

이옥경 (주)서울옥션 대표이사

Gold

구희정

김재우 키움건설(주) 대표

대현회계법인

배영표 대림메디컬 회장

(주)엔디에스테크

이상경 대정시스템 주식회사 대표

이영순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

Silver

강한주 변호사 강한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구혜정

권성준

김선옥

김성우

김수영 IMM 인베스트먼트(주) 상무

김현태 회계법인 베울 본부장

박용좌 코리아남성합창단 단장

양철중 강동본터치정형외과의원 대표원장

오현방 코리아남성합창단 단원

이대복 대석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대현

이인성 세움앤나눔(주) 대표

이재욱 법무법인(유) 린 미국 변호사

이준호

임 금

임익주 (주)창인상사 대표이사

최세환 월드씨에스(주) 대표이사

황서웅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금융그룹장)

홍승빈 (주)허리우드 대표이사

홍승빈 (주)허리우드 대표이사

NCK Friends

강혜령

안성현

이주활

최형선

가입하기



국립합창단 2026 시즌 숨 패키지



바로크에서 고전, 그리고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작품을 담은 단 하나의 선택!

A석 1매 x 연간 4회

40% 할인 120,000원(정가) → 72,000원
&

프리렉처 + 국립합창단 굿즈 제공

제207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c단조 대미사

Mozart, Great Mass in c minor, K. 427
Mozart, 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e, K. 339
26. 5. 13. (수)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20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계창조

Haydn, Die Schöpfung, Hob. XXI:2
26. 6. 19. (금)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20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 슈베르트

Beethoven, Mass in C major, Op. 86
Schubert, Mass in E-flat major, D. 950
26. 9. 30. (수)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210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

Händel, Messiah, HWV 56
26. 12. 15. (화)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매하기



국립합창단 제206회 정기연주회 창작 합창음악극 <어느 봄날의 꿈>

작 곡 이성준(Brandon Lee)
대본·구성 김솔지



지휘 **민인기** 단장 겸 예술감독
내레이션 **유준상** 배우
출연 **김성식** 뮤지컬 배우 (레퍼야모리) **김지훈** 뮤지컬 배우 (리베라데) **이지연** 뮤지컬 배우 **문선우** 아역 배우
문형근 최성철 함신규 정태준 김한나 박현철 박동현 국립합창단 단원 외
합창 **국립합창단**
관현악 **라푸즈필하모닉오케스트라**

A DREAM OF A SPRING DAY

한 소년이 뮤지컬 <벤허>, <프랑켄슈타인>, <베르사유의 장미>, <비밀의 화원>, <한복 입은 남자>, <메리셀리> 속 장면들을 직접 마주하며, 달허이던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어느 봄날의 성장 이야기

2026.3.24.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합창으로 남긴 기억의 연대기

3·1절과 광복절, 마음에 새긴 그날의 무대

국립합창단은 3·1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합창으로 되새기며, 그 기억을 오늘의 언어로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우리 시대의 가치를 노래하겠습니다.





스타인웨이 D-274(함부르크) 2대
보젠도르퍼 (92 keys) 1대
* 2 Steinway D-274 (Hamburg)
* 1 Bösendorfer 92 keys



각종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자연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오픈 스페이스

 명선아트홀
MYEONGSUN ART HALL
www.msarthall.com